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구성 요인 탐색 및 확인: 부모의 정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분석

백종남*

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요약》

이 연구는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 구성 요인을 탐색, 확인하고 그 내적 경로를 분석하여 부모의 정서불안에 미치는 직접, 간접 및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를 발달장애로 조작 정의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C지역 특수학교 3개교 242명의 발달장애 학부모를 목적 유층표집 하였다. 이 연구의 도구는 오가실(1997)과 남연희(2001)가 개발·타당화한 양육 부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요인분석과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 요인으로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장애수용거부, 정서불안 등 5개 요인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5개 요인은 선행연구의 4개 요인보다 적합성이 높은 모형으로 밝혀졌다. 둘째,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요인의 내적 경로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부담에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 신체적 부담은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하여 정서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부담과 장애수용거부는 정서불안에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동시에 있지만, 경제적 부담은 직접 효과 없이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만 있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내적 경로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과 관련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후속연구 제언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발달장애, 양육부담, 탐색요인분석, 확인요인분석, 경로 분석

* 제 1저자 (jongnamy@gmail.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이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어 울부짖는 순간 부모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 역시 동반한다. 부모가 되기 전 마음가짐을 비롯한 다양한 준비를 하였겠지만, 실상 부모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한 책임감의 무게는 클 수밖에 없다.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아이가 요구하는 것과 아이에게 요구되는 것을 찾아내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 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새롭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안전과 보호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지·정서적 성장을 도와야 한다(Aunos et al., 2008; Feldman, 1994; Tymchuk, 1998).

장애자녀를 둔 경우 돌봄에 대한 부담은 일반아동의 그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자녀의 장애로 인한 더 다양하고 특별한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애아 부모는 일상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과 치료 서비스 요구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백은령, 유영준, 이명희, 최복천, 2010; 임영선, 2004; 홍순애, 2008; Singh, Goyal, Pershad, Singhi, & Walia, 1990; Sloper, 1999), 과도한 돌봄 시간(양심영, 김유경, 2013; Crowe, 2006; Leonard, 1992), 사회적·문화 활동의 제약 및 가족관계 불안 등 사회적 부담(김혜란, 1997; 백은령 외, 2011; 이은정, 2006; 한현정, 김혜영, 2003; Oh & Lee, 2009),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고인숙, 2004; 백은령 외, 2011), 불안·우울(김미희, 2012; 김은숙, 1985; 박은신, 2004; 오혜경, 1999; 임은경, 2009; Bristol, Gallagher & Schopler, 1988; Hastings, Kovshoff, Word, Degli Espinosa, Brown, & Remington, 2005; DeMyer, 1979; Gray, 2003; Olsson, & Hwang, 2001; Veisson, 1999) 등을 보고하고 있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은 다른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부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발달장애의 특성에 따라 다른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자녀가 인지적·신체적으로 유의하게 일탈되어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른 보살핌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반응 결여로 인한 실망감, 우울, 좌절 등 심리적 불안에 빠지게 되고(박은신, 2004)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쉽다(권연주, 2015; 주연경, 2014). 발달장애자녀가 일반학교 정규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일반학생으로부터의 놀림을 받거나

교사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인숙, 2004). 발달장애 자녀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부모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진식, 2013). 발달장애인의 부족한 자립 역량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다(김진숙, 2015; 최복천, 백은령, 임수경, 2013).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이 무엇인지 함축하여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도구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양육부담을 측정하는 척도는 권중돈(1994)과 오가실(1997)이 개발한 도구가 대표적이다. 권중돈(1994)이 개발한 도구는 가족의 양육부담 측정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여러 선행 연구(권연주, 2015; 김주경, 2007; 김진식, 2013; 최지선, 이선주, 손주영, 2009)에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에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경제적 부담, 심리·정서적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가족적 측면 부담, 미래에 대한 부담 등 6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30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오가실(1997)은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 4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8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 두 도구 구성 요인을 비교해보면, 두 도구 모두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권중돈(1994)의 도구에서는 가족적 측면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부담이 추가되어 있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 도구를 통해 볼 때,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은 신체적 부담, 정서적 부담,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와 부모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낸 연구(권연주, 2015; 김성천, 김솔아, 2015; 김주경, 2007)를 비롯하여, 가족의 지지 또는 지원 요구(김주경, 2007; 김진식, 2013; 신계숙, 2013; 어용숙, 2000; 유영준, 백은령, 2013), 사회적 지지 및 지원(남연희, 2001; 배경희, 정영숙, 2008; 최지선, 이선주, 손주영, 2009), 생애 주기별 지원 및 평생계획 수립(박미진, 강명희, 김두영, 2015; 이경림, 박주홍, 2013; 최지선, 이선주, 손주영, 2009), 스트레스 대처행동(배경희, 정영숙, 2008), 부모의 근골격계 증상(박소정, 송브라이언병, 이상춘, 2013), 신체학대(김성천, 김솔아, 2015) 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양육부담감 요인 구성과 그 내적요인 간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없었다. 발달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부담감 요인의 구성 타당성과 그 내적 요인의 관계를 밝혀낸다면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오가실(1997)의

양육부담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발달장애자녀 부모의 양육부담감 구성요인을 재탐색하고, 그 구성요인 간 내적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오가실(1997)의 양육부담감 측정 도구는 발달지연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남연희(2001)가 지적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하였다. 그 이후 발달지체유아 아버지(강운영, 2006), 정인지체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아동 어머니(박소정, 송브라이언병, 이상춘, 2013),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아동의 부모(유영준, 백은령, 2013), 뇌성마비아 부모(어용숙, 2000) 등 여러 발달장애 유형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어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을 측정하기에 적당한 도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오가실(1992)에 의해 개발되고 남연희(2001)에 의해 타당화된 양육부담감 척도를 사용하여,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을 측정하는 타당한 구성요인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구성요인 간 내적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구성요인이 어떠한지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밝히고, 경로분석을 통해 그 경로가 어떠한지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구성 요인 간 내적 경로는 어떠한가?

3. 용어 정의

이 연구는 발달장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달장애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로 확장하여 조작 정의하였다. 발달장애인법을 비롯한 일반적인 견해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 장애로 인한 지원적 요구가 비슷하여 공통적으로 접근하려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뇌성마비아 중 인지적 제한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에 포함되어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순수 뇌성마비로서 발달장애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뇌성마비아 부모 역시 다른 유형의 발달장애만큼이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양육 부담감이 크고(구신실, 박재국, 조영석, 2009; 김정민, 최민숙, 2003; 박지연, 유은연, 2004; 백종남, 2015a; 어용숙, 2000) 비슷한 지원의 요구가 있다. 발달장애아 부모 지원의 관점에서 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뇌성마비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정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참여자

이 연구는 발달장애아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C 지역 특수학교 3개교에서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부모를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을 학생(자녀) 변인과 응답자(학부모) 관련 변인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 242)

구분		n	%	구분		n	%	
자녀 관련	성	남	165	68.2	종교	천주교	31	13.0
		여	77	31.8		개신교	42	17.6
	학교	초등 1-3학년	43	17.8		불교	52	21.8
		초등 4-6학년	41	16.9		기타	9	3.8
		중학교	63	26.0		종교 없음	105	43.9
	과정	고등학교	63	26.0	학력	고등학교 졸업	146	60.3
		전공과	32	13.2		대학교 졸업	86	35.5
	장애 유형	장애	지적장애	111	45.9	대학원 졸업	10	4.1
			자폐성장애	76	31.4	부모 관련	전업주부	129
		뇌성마비	55	22.7	직업		전문 공무원 사무	38
장애 등급		1등급	162	67.2	자영 영업 서비스		41	16.9
	2등급 이하	79	32.8	기타	34	14.0		
장애 정도	장애 정도	경도	55	24.8	평균 소득 (월)	200만원 미만	29	12.4
		중등도	44	19.8		200만 원대	44	18.9
	중도	123	55.4	300만 원대	61	26.2		
	관계	아버지	33	13.6	400만 원대	67	28.8	
어머니		209	86.4	500만원 초과	32	13.7		
부모 관련	연령	30대 이하	56	23.6	계층 의식	중의 상층	46	19.2
		40대 초반	70	29.5		중의 하층	118	49.4
		40대 후반	74	31.2	하층	53	22.2	
		50대 이상	37	15.6	잘 모르겠다	22	9.2	
합계		242	100	합계		242	100	

2. 도구

이 연구는 조사연구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양육 부담감 측정도구로서, 오가실(1997)이 외국의 선행연구(Montgomery, Gonyea, & Hooyman, 1985; Novek & Guest, 1989; Zarit, Reeve & Bach-Peterson, 1980)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것을 남연희(2001)가 탐색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남연희(2001)가 박사학위논문에서 제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도구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부담 6문항, 정서적 부담 7문항, 사회적 부담 10문항, 신체적 부담 5문항 등 4개 요인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요인별 신뢰도를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로 알아본 결과 $a = .794$ 에서 $a = .939$ 로 나타났으며, 전체 $a = .948$ 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코드	문항	요인명	신뢰도(a)
X01	아이 돌보는 일로 몸이 고달프다.	신체적 부담	.910
X02	아이 돌보는 일로 인해 피로해도 충분한 피로를 취할 수 없다.		
X03	아이를 돌봄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다.		
X04	아이 양육 때문에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다.		
X05	아이 양육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		
X06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서적 부담	.794
X07	아이 장래를 생각하면 늘 걱정스럽다.		
X08	아이를 돌보노라면 짜증이 난다.		
X09	아이가 장애아동으로 출생한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X10	아이가 장애아동으로 출생한데 대해 수치감을 느낀다.		
X11	아이가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다.		
X12	아이가 장애아동으로 출생한데 대해 원망스럽다.		
X13	아이를 돌봐야 하는 내 처지를 생각하면 우울하다.		
X14	아이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외출이나 외식을 할 수가 없다.	사회적 부담	.939
X15	아이를 돌봐야 하므로 친구나 친척들이 나의 집을 쉽게 방문하지 못한다.		
X16	아이를 돌봄으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각종 모임에 지장을 받는다.		
X17	아이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X18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문화생활(연극, 극장, 연주회 등)에 덜 참여하게 된다.		
X19	아이 때문에 친구나 친척집을 방문하기가 어렵다.		
X20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은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의 성장과 발전에 지장을 준다.		
X21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진다.		
X22	아이를 돌봄으로 인해 내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일이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X23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이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곤 한다.		
X24	아이에게 드는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경제적 부담	.869
X25	아이에게 드는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부담이 된다.		
X26	아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X27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점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 걱정된다.		
X28	아이를 돌봄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전체	28개 문항	4 요인	.948

3. 절차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C 지역 특수학교 3개교(지적장애, 정서장애, 지체장애)를 선정하여 연구협조자로 하여금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8부를 회수하였다. 양육부담감 척도에서 5개 이상 연속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개인 정보를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6부를 제외한 242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처리

이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v. 22.0)와 AMOS(v.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SPSS를 사용하여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MOS를 사용하여 확인요인분석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발달장애자녀 부모의 양육부담감 구성 요인

1) 탐색요인분석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에 대한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균은 2.45(X10)에서 4.78(X07), 표준편차는 .611(X07)에서 1.429(X14), 왜도는 -3.250(X07)에서 .560(X10), 첨도는 -1.368(X15)에서 11.634(X07)의 범위를 각각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왜도와 첨도가 -3에서 +3의 범위를 벗어나 자료의 정규성이 의심되는 X07 문항을 탐색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문항의 기술통계 결과

코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코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X01	3.66	1.098	-.706	-.139	X15	3.00	1.422	.036	-1.368
X02	3.46	1.120	-.459	-.459	X16	3.53	1.148	-.621	-.356
X03	3.07	1.259	-.058	-1.052	X17	2.82	1.311	.196	-1.140
X04	3.01	1.198	-.147	-.858	X18	3.61	1.187	-.641	-.437
X05	2.95	1.276	.053	-.983	X19	3.34	1.324	-.338	-1.097
X06	3.85	1.271	-.761	-.626	X20	3.35	1.216	-.358	-.779
X07	4.78	.611	-3.250*	11.634	X21	3.43	1.267	-.337	-.972
X08	3.15	1.111	-.126	-.561	X22	3.43	1.100	-.472	-.397
X09	3.71	1.187	-.664	-.597	X23	3.54	1.131	-.485	-.696
X10	2.45	1.259	.560	-.714	X24	3.02	1.225	.048	-.889
X11	4.22	.984	-1.189	.693	X25	3.10	1.236	.001	-.899
X12	3.12	1.357	-.109	-1.204	X26	3.95	1.061	-.760	-.232
X13	3.53	1.152	-.400	-.640	X27	3.89	1.093	-.776	-.269
X14	2.71	1.429	.264	-1.271	X28	3.56	1.215	-.472	-.782

* 진한 셀은 왜도와 첨도가 -3에서 +3의 범위를 벗어난 문항임

기술통계 결과 X07 문항을 제외한 27개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축요인추출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시행하였다. KMO 및 Bar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가 .918(근사 $\chi^2 = 4616.337$, $df = 378$, $p < .01$)로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설명된 총분산 초기 고유값은 전체 분산의 69.41%를 설명하고 있고, 회전 제곱합 적재값은 5개 요인으로 추출되어 62.76%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통 총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까지 선정한다(채서일, 2005)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백종남, 2011 재인용), 이 척도는 5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에 구성된 문항의 공통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인을 해석하였다: (1) I 요인은 발달장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각종 가족, 사회 활동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사회적 부담’으로 명명하였다. (2) II 요인은 발달장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문항들로서 ‘경제적 부담’으로 명명하였다. (3) III 요인은 장애아동에 대한 수치감, 원망, 죄책감 등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장애수용거부’으로 명명하였다. (4) IV 요인은 발달장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육체적 피로 및 건강상의 불안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신체적 부담’으로 명명하였다. (5) V 요인은 발달장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우울, 고통, 짜증 등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서불안’으로 명명하였다.

<표 4>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탐색요인분석 결과^a

코드	I ^b	II	III	IV	V	코드	I	II	III	IV	V
X19	.852			.535		X10	.401		.733		
X21	.819			.467		X12			.574		.562
X18	.806			.620		X09			.412		
X17	.799			.496		X04	.517			.915	
X15	.788			.469		X05	.533			.835	
X23	.772	.463		.585	.406	X02	.538			.830	
X20	.760	.439		.613		X03	.555			.778	
X14	.759			.500		X01	.554	.443		.722	.462
X22	.728			.672		X06	.412			.485	
X16	.727			.648		X13	.584			.548	.682
X24	.458	.843		.501		X11					.556
X27		.816			.452	X08	.501	.438		.520	.535
X25		.812	.417								
X28	.547	.704		.487							
X26		.613									

a. 요인추출: 주축요인추출법, 직접 오블리민 회전
 b. 요인명: I. 사회적 부담, II. 경제적 부담, III. 장애수용거부, IV. 신체적 부담, V. 정서불안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척도의 탐색요인분석 결과,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 신체적 부담, 정서불안 등 5개 요인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척도는 기존 척도에서 제시하였던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이 같은 요인과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존 정서적 부담으로 구성되었던 문항이 장애수용거부와 정서불안 등 두 요인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 정서적 부담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던 X06 문항은 이번 요인분석에서 신체적 부담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요인의 모형 적합성 검증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4개 요인 모형을 기초모형으로, 이 연구 결과로 도출된 5개 요인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정하여 비교하였다(표 5).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모형의 적합지수를 문수백(2009)이 제안하는 적합지수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표 5〉 기존모형(4요인)과 연구모형(5요인)의 적합성 비교

	χ^2 (df)	NC(Q)	TLI	CFI	SRMR	RMSEA	
						LO90	HI90
기존모형	1082.52(338)	3.203	.824	.842	.080	.089	.102
연구모형	932.385(309)	3.017	.847	.865	.070	.085	.098

첫째, 표준카이제곱(NC: χ^2) 모형 적합성 검증 결과 기존모형이 3.203인 반면 연구모형은 3.017로서 두 모형은 모두 적절한 수준이지만(Bollen, 1989; 백중남, 2011 재인용) 연구모형이 기존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터커-루이스 적합지수(TLI) 모형 적합성 검증 결과 기존모형이 .824, 연구모형은 .847로서 두 모형 모두 양호하다고 볼 수 없으나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교적합지수(CFI) 모형 적합성 검증 결과 기존모형이 .842, 연구모형은 .865로서 두 모형 모두 양호하다고 볼 수 없으나 기존모형보다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표준화 잔차이중제곱근(SRMR) 모형 적합성 검증 결과 기존모형이 .080, 연구모형이 .070 두 모형 모두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연구모형이 기존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제곱근(RMSEA) 모형 적합성 검증 결과(90% 신뢰도 구간) 기존모형이 .089-.102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모형으로 볼 수 있고, 연구모형이 .085-.098로서 그런대로 괜찮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Brown & Cudeck, 1993; 백중남, 2011 재인용).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NC, SRMR, RMSEA의 지수를 통해 볼 때 기존모형과 연구모형 모두 비교적 좋은 모형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TLI와 CFI를 통해 볼 때 적합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의 적합성 지수가 최적 기준에 근접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모형이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3) 모형의 요인과 변수 간 인과관계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모형의 적합성이 더 양호하다고 비교 검증된 연구모형의 요인과 변수 간 인과관계를 임계치(t -value)로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수(요인)가 관측변수에 유의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었으며($p < .001$) 설명량은 $R^2 = .230 \sim .757$ 의 범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모형의 각 요인이 그것을 측정하는 각각 문항과의 관계가 적절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모형의 요인과 변수 간 인과관계 및 신뢰도/타당도

요인	변인	적재값		표준오차	t	R ²	신뢰도/타당도	
		비표준화	표준화				CR	AVE
사회적 부담	X14	1	0.73			0.533	0.942	0.617
	X15	1.01	0.741	0.071	14.142***	0.549		
	X16	0.857	0.779	0.07	12.232***	0.607		
	X17	0.911	0.741	0.076	11.93***	0.549		
	X18	0.945	0.824	0.072	13.115***	0.679		
	X19	1.07	0.843	0.081	13.26***	0.711		
	X20	0.92	0.789	0.074	12.41***	0.623		
	X21	0.969	0.797	0.077	12.539***	0.635		
	X22	0.844	0.801	0.067	12.543***	0.642		
	X23	0.873	0.805	0.069	12.676***	0.648		
경제적 부담	X28	1	0.76			0.578	0.868	0.572
	X27	0.915	0.773	0.075	12.248***	0.598		
	X26	0.665	0.579	0.075	8.899***	0.335		
	X25	1.051	0.786	0.085	12.39***	0.618		
	X24	1.123	0.856	0.081	13.816***	0.733		
장애수용거부	X09	1	0.538			0.289	0.701	0.446
	X10	1.249	0.635	0.168	7.441***	0.403		
	X12	1.74	0.803	0.211	8.227***	0.645		
신체적 부담	X06	1	0.51			0.260	0.899	0.604
	X05	1.626	0.827	0.199	8.189***	0.684		
	X04	1.608	0.87	0.192	8.366***	0.757		
	X03	1.535	0.791	0.191	8.03***	0.626		
	X02	1.461	0.846	0.177	8.271***	0.716		
	X01	1.287	0.761	0.163	7.884***	0.579		
정서불안	X08	1	0.712			0.507	0.718	0.470
	X11	0.597	0.48	0.084	7.143***	0.230		
	X13	1.195	0.821	0.098	12.17***	0.674		

*** $p < .001$

CR: Construct Reliability(개념신뢰도),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평균분산추출)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모형의 잠재변인 신뢰도(CR)는 .701에서 .942로 나타나 모형의 모든 요인은 단일 차원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모형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446에서 .617로 나타났다. “AVE 지수가 .50 이상 되어야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는데(문수백, 2009: p. 529)” 장애수용거부 요인과

정서불안 요인이 각각 .446과 .470으로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요인 문항들 표준화 적재값이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신뢰도를 크게 해치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 수정 필요 없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상의 확인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각 요인과 측정 문항과의 관계가 유의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각 요인에 대한 단일차원성 및 신뢰성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므로,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모형의 구성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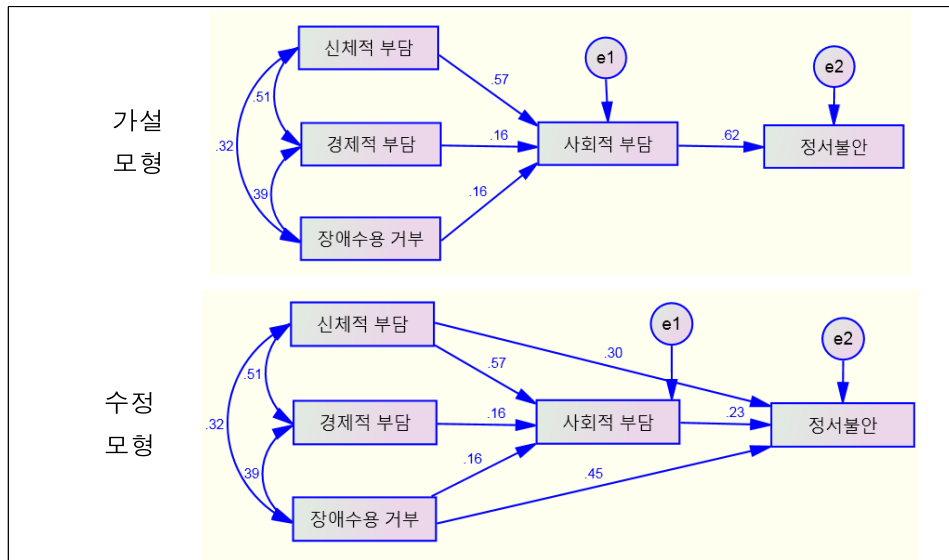
이상의 탐색·확인요인분석 결과,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요인은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 신체적 부담, 정서불안 등 5개 요인 27개 문항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내적 경로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내적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에 따른 가설적 경로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MI)에 따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요인의 가설적 경로모형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내적 경로는 다음과 같은 가설에 바탕을 두었다: 첫째,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은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 신체적 부담, 정서불안 등 5개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발달장애아 부모의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으며, 각각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하여 정서불안을 예측할 것이다. 이 가설을 바탕으로 가설모형의 경로를 설정한 후 그 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 추정치를 그림 1과 같이 산출하였다.

가설모형에서 정서불안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신체적 부담($\beta = .57, p < .01$)과 경제적 부담($\beta = .16, p < .01$), 장애수용거부($\beta = .16, p < .01$)가 모두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하여 정서불안에 유의한 영향($\beta = .62, p < .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경로 적합도는 $CMIN = 110.915(df = 3, p < .01)$, $Q(NC) = 36.972$, $GFI = .871$, $TLI = .324$, $CFI = .797$, $RMSEA = .386$, $SRMR = .118$ 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가설모형이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형 수정이 필요하였다. 모형 수정 방법은 가설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제시된 수정지수에 따라 “신체적 부담→정서불안(MI = 10.764)” “장애수용거부→정서불안(MI = 58.25)” 등 두 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모형의 내적 경로(가설/수정 모형)

모형을 수정한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MIN= 2.660($df= 1, p > .01$), Q(NC)= 2.660, GFI= .996, TLI= .969, CFI= .997, RMSEA= .073, SRMR= .083으로서 가설모형에 비해 적합성이 향상된 모형으로서 수용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경로 적합도 (N= 242)

	CMIN(df, p)	Q(NC)	GFI	TLI	CFI	RMSEA	SRMR
가설모형	110.915 ($df= 3, p < .01$)	36.972	.871	.324	.797	.386	.118
수정모형	2.660 ($df= 1, p > .01$)	2.660	.996	.969	.997	.073	.083

수정모형은 신체적 부담($\beta = .57, p < .01$)과 경제적 부담($\beta = .16, p < .01$), 장애수용거부($\beta = .16, p < .01$)가 모두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하여 정서불안에 유의한 영향($\beta = .23, p < .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부담($\beta = .30, p < .01$)과 장애수용거부($\beta = .45, p < .05$)는 정서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수정모형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사회적 부담에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가 직접 효과 변수로 나타났다.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는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하여 정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부담과 장애수용

거부는 정서불안에 직접 효과 변수이면서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나, 경제적 부담은 직접 효과 없이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만을 나타냈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사회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는 신체적 부담이 .57로서 가장 높고, 경제적 부담과 장애수용거부가 각각 .16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정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총 효과는 장애수용거부가 .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체적 부담이 .43, 사회적 부담이 .23, 경제적 부담이 .04로 나타났다.

〈표 8〉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 내적 경로의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 (N= 242)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16	0	.16
	장애수용거부	.16	0	.16
	신체적 부담	.57	0	.57
정서불안	경제적 부담	.0	.04	.04
	장애수용거부	.45	.04	.49
	신체적 부담	.30	.13	.43
	사회적 부담	.23	0	.23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 구성요인을 확인하였으며, 내적 구성요인 간 경로 분석을 통한 직접, 간접 및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발달장애아 부모의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는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하여 정서불안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개변인으로서 사회적 부담은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의 결과임과 동시에 정서불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부담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발달장애아 부모의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가 크더라도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있을 경우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이 사회적 부담의 정도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아 가족의 부담이 다른 요인보다 사회적

지지라는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배경희, 정영숙, 2008)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스트레스, 우울, 양육부담감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임원균, 오은경, 2014)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자조집단을 운영하여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등 실제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양육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최지선, 이선주, 손주영, 2009).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가족의 화합에 영향을 주어 발달장애인의 행동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임원균, 오은경, 2014; 전혜인, 2005; Dunst, Trivette, & Cross, 2002). 사회적 지지는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의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요소임과 동시에 중재적 역할을 함으로써 스트레스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최세나, 2009; 권연주, 2015 재인용). 발달장애아 부모의 심리·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지망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부모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 결과 발달장애아 부모의 장애수용거부가 정서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발달장애아의 출생과 더불어 그 부모는 죄의식, 양가감정, 절망, 좌절, 분노, 수치심, 슬픔 등을 경험하게 된다(Baum, Singer, & Baum, 1981). 발달장애아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불안한 미래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헌신적인 노력이 강요되어온 바 역시 없지 않다. 발달장애아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을 견뎌 내는 것이 부모의 고유 역할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는 사이 발달장애아 부모가 갖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갖추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1차 집단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친척, 직장 동료 등 2차 집단의 참여를 유도하여 발달장애아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장애아 부모의 신체적 부담은 사회적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서불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신체적 부담은 사회적 부담을 매개로 하여 정서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아울러 정서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발달장애아 부모의 신체적 부담이 사회적 지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정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발달장애아동은 식사와 음식 준비, 신변처리, 개인위생,

가사적응, 이동기술 등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신체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뇌성마비아동은 일상생활에서 대·소근육 운동이 필요한 다양한 생활기술을 익히는 것과 이동하는 기능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한시도 아동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정서불안이 가중된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신체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그 요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발달장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다른 요인에 비해 정서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만을 놓고 발달장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신체적 부담, 장애수용거부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변수에 의해 그 부담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장애아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자녀 관련 변인과, 부모의 직업, 소득, 계층의식 등 관련 변인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발달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에 따라 구입하여야 하는 보장구와 재활치료, 의료, 문제행동치료 등 다양한 추가 지출 비용이 발생한다. 발달장애아 부모는 발달장애아동 또는 성인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권연주(2015)의 최근 연구에서 가족구성원 수, 월평균 소득, 부모의 연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다름을 보고하였다. 발달장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다양한 변인을 조사하여 다차원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발달장애아 부모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의 출생과(Baum, Singer, & Baum, 1981) 양육의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하지만,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권정순, 1998; 주현숙, 2000). 자녀의 장애를 계기로 가족이 화합하고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지원망을 확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 역시 보고되고 있다(김은서, 2005; 배연숙, 2012).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이 일반 자녀를 둔 부모와 비교하여 더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와 그 가족의 심리적 준비에 따라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자녀가 살아가게 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도 부모와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의 역할이라고 본다. 발달장애자녀가 장애를 안고도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어 독립적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승희, 2011; 백중남, 2015b 재인용).

여섯째, 이 연구의 도구인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 하위 요인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선행 발달장애아 대상 연구(남연희, 2001; 오가실, 1997)에서 정서적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였던 문항들이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거부와 정서불안 등 2개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아 부모의 정서적 부담이 장애수용거부와 정서불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구방법론적으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행연구(남연희, 2001)에서 지적장애아 부모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 등 장애유형을 발달장애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탐색요인분석의 적용과 회전 방법에 따른 차이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심리통계학적 관점의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오가실(1997)의 척도를 근간으로 남연희(2001)가 지적장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양육부담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외에도 국내 여러 연구(권연주, 2015; 김주경, 2007; 김진식, 2013; 최지선, 이선주, 손주영, 2009)에서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하기 위해 권중돈(1994)의 치매노인 부양 부담감 측정 도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두 도구 모두 양육부담 측정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연구자는 오가실(1992)의 도구를 선택하였다. 오가실(1992)의 도구는 이미 선행연구(남연희, 2001; 박소정 등, 2013; 백은령, 2013; 어용숙, 2000; 유영준)에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역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 양육부담 도구(남연희, 2001)를 사용하여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부담, 장애수용거부, 신체적 부담, 정서불안 등 5개 요인 27개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과정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성마비 자녀를 둔 부모를 표집하여 자료 수집한 후, 탐색요인분석과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의 구조와 문항을 확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내적 경로를 밝혔다. 이러한 심리측정학적 과정을 통해 이 도구가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을 측정하는데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본다. 향후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 관련 연구에서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아 부모의 양육부담감을 측정하였으므로, 특수학급 등 다른 조건에 있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까지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발달장애아 부모가 속한 다양한 배경과 변수를 통한 양육부담감을 보고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기존 양육부담감 측정 도구를 심리측정학적 관점으로 재분석하여 발달장애아 부모 양육부담감의 내적 경로를 밝혔으므로, 이외 다른 구성요인과 다른 경로가 구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양육부담감 요인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후속 연구 역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운영 (2006). 발달지체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고인숙 (2004). 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청소년 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구신실, 박재국, 조영석 (2009). 뇌성마비유아 가족지원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중복·지체부자유 연구**, 52(1), 377-396.
- 권연주 (2015).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 권정순 (1998). 장애아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중돈 (1994). 한국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미희 (2012). 지적·자폐성 장애자녀의 평생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김성천, 김솔아 (2015).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이 발달장애 자녀의 신체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2, 279-308.
- 김은서 (2005). 정신지체자녀 양육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은숙 (1985). 자폐아 어머니와 정상아 어머니의 불안, 좌절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민, 최민숙 (2003).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실행을 위한 가족의 요구와 지원 상태 분석: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8(2), 85-112.
- 김주경 (2007). 발달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진숙 (2015).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63-490.
- 김진식 (2013).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 김혜란 (1997). 장애아동 가족체계 지원에 관한 소고. **재활복지연구**, 1(1), 60-81.
- 남연희 (2001). 정신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미진, 강명희, 김두영 (2015). 발달장애자녀를 위한 부모의 평생계획 현황 및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0(1), 211-233.
- 박소정, 송브라이언병, 이상춘 (2013). 발달장애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어머니의 근골격계 증상 및 양육부담감과의 관계. **발달장애연구**, 17(3), 47-70.

- 박은신 (2004). **뇌성마비아동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 박지연, 유은연 (2004). 장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가족지원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2), 139-169.
- 배경희, 정영숙 (2008). 발달장애아동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부담 및 대처행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4), 115-137.
- 배연숙 (2012).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장애 수용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은령, 유영준, 이명희, 최복천 (2010).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백종남 (2011). **발달장애학생 다중지능 측정 문항의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공주: 공주대학교 대학원.
- 백종남 (2015a).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특수학교 학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407-427.
- 백종남 (2015b). 발달장애학생의 평생교육 요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및 그 영향력 검증.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1(1), 185-202.
- 신계숙 (2013).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양가족들의 양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 양심영, 김유경 (2013). 학령 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시간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75-91.
- 어용숙 (2000). **뇌성마비아 부모의 부담감 및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대학교 대학원.
- 오가실 (1997). 사회적 지지모임이 발달지연아 어머니의 부담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7(2), 389-400.
- 오혜경 (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유영준, 백은령 (2013). 가족중심실천이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에 미치는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22, 207-224.
- 이경림, 박주홍 (2013).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 부담과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15(2), 349-373.
- 이은정 (2006). **장애아부모의 양육부담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임영선 (2004).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경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원균, 오은경 (2014).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요인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1, 173-200.
- 임은경 (2009).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성격특성,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혜인 (2005). 부모결연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능력강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0(1), 267-280.

- 주연경 (2014). 발달장애아 부모의 비합리적 신념과 우울 및 불안 의식의 관계 분석. 박사학위 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 주현숙 (2000). 장애 아동 가족의 장애 수용 과정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36(1), 149-162.
- 채서일 (2005).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제3판*. 서울: 비·엔·엠·북스.
- 최복천, 백은령, 임수경 (2013). 발달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최세나 (2009). 장애자녀 어머니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지선, 이선주, 손주영 (2009).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평생계획, 양육부담감 간의 관계검증. *사회복지연구*, 40(4), 41-71.
- 홍순애 (2008). 농어촌 정신적 장애인의 평생계획에 관한 연구: 충남 태안군 거주 정신적 장애인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 Anous, M., Feldman, M., & Goupil, G. (2008). Mothering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health and well-being,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outcom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1, 320-330.
- Baum, A., Singer, J. E., & Baum, C. S. (1981). Stress and the environ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7(1), 4-35.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Y: Wiley.
- Bristol, M., Gallagher, J., & Schopler, E. (1988). Mothers and fathers of young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non-disabled boys: Adaptation and spousal support.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41-451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rowe, T. K. & Florez, S. L. (2006) Time use of mothers with school-age children: A continuing impact of a child's disa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0(2), 194-203.
- DeMyer, M. K. (1979). *Parents and children in autism*. Washington, VH Winston.
- Dunst, C. J., Trivette, C. M., & Cross, A. H. (2002). Mediation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Personal, family, and child outcomes. In J. Blacher, B. Baker, & D. Braddock (Eds.), *The Best of AAMR: Families and Mental Retardation: A Collection of Notable AAMR Journal Article Across the 20th Century* (pp. 119-135).
- Feldman M. A. (1994) Parenting education for par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review of outcome stud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5(4), 299-332.
- Gray, D.E. (2003). Gender and coping: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high functioning autism. *Social Sciences and Medicine*, 56(3), 631-642.

- Hastings, R. P., Kovshoff, H., Word, N. J., Degli Espinosa, F., Brown, T., & Remington, B. (2005). System analysis of stress and positive perceptions in mothers and fathers of pre-school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 35*(5), 635-644.
- Leonard, B. J., Johnson, A. L., & Brust, J. D. (1993).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those managing "OK" and those needing more help. *Child Health Care, 22*(2), 93-105.
- Montgomery, R. J. V., Gonyea, J. G., & Hooyman, N. R. (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34*(1), 19-26.
- Novak, M. & Guest, C. (1989).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caregiver burden inventory. *The Gerontologist, 29*(6), 798-803.
- Oh, H. & Lee, E-K. O. (2009). Caregiver burden and social support among mothers rais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6*(2), 149-167.
- Olsson, M. B., Hwang, C.P. (2001). Depression in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5*(6), 535-543.
- Singh, P. D., Goyal, L., Pershad, D., Singhi, S, & Walia, B. N. S. (1990) Psychosocial problems in families of disabled childre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2), 173-182.
- Sloper P. (1999). Models of service support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What do we know? What do we need to know?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25*(2), 85-99.
- Tymchuk A. J. (1998) The importance of matching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parents needs in child maltreatment: Issues, methods, and recommendations. In J. Lutzker(ed.) *Handbook of Child Abuse Research and Treatment*(pp. 421-448). NY: Plenum Press.
- Veisson M.(1999). Depression symptoms and emotional states of parents of disabled and non disabled children. *Social Behaviou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7*(1), 87-97.
-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B.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

Parenting Burden Factor Exploration and Confirmation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alysi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ffecting Emotional Anxiety

Baek, Jongnam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for parenting burden factor exploration and confirmation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for analysi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affecting emotional anxiety of par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42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lected in 3 special schools in C districts by a purposeful sampling. For testing parental burden of parents, the parental burden test developed by Oh(1997) and Nam(2001) was us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1) As a result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5 factors were extracted as a parental burden of parents: social burden; financial burden; physical burden; disability acceptance burden; emotional anxiety. (2)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financial, physical, and disability acceptance burden have direct effect on social burden, and social burden has direct effect on emotional anxiety. Physical burden and disability acceptance burden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 mediated by social burden on emotional anxiety. However financial burden has indirect effect mediated by social burden on emotional anxiety without direct effect. This study may be useful to understand parental burden trait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astly the implication, limitation and suggestion for following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y, parental burde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analysis

논문 접수: 2015. 11. 03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5. 12. 14